

비뇨기과 전문의 정치영의
술직, 대담한 性

남녀 간의 체위는 그야말로 다양하다.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법이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타 동물에 견주어지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는 당연한 것이기도 모른다.
그 중에서도 여성이 주도하는 여성상위는 받아들인 남성의 성기를 자신이 원하는 성감 부위에 자의대로 자유롭게 자극을 조절하여 성적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체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고추도 부러질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이끄는 그 체위에 그리 알려지지 않은 황당하고도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독자들은 아는가?
전공의 초년병 때 일이다. 하루 일과를 힘겹게 마치고 당직실에서 피곤에 지쳐 잠에 떨어질 무렵

여성 상위, 조금만 조심해 주시라

늘 그렇듯 응급실 번호가 찍힌 무선호출기가 울어댔다. 졸린 눈을 비비며 도착한 응급실에는 외관상 특별한 이상이 없게 보이는 중년신사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곁에 부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무슨 죄라도 지은 듯 훌쩍이고 있었다.
얼핏 스친 환자의 외관은 비교적 멀쩡한데 반해 그 부인의 창피한 듯 흐느끼는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기에 무슨 연유로 이 새벽에 응급실까지 온 것인지 궁금했다.
어디가 아프는지 물어봐도 머뭇거리며 눈길을 피하는 아주머니를 뒤로 하고 환자에게 직접 “어디가 아프십니까?” 물어보며 무심코 그의 바지를 내리는 순간, 당시 신출내기 의사인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환자의 성기는 마치 뱀을 밟아 놓은 듯 흥성한 모습으로 곳곳이 피멍든 채 비틀어져 있었던 것이다. 어렵사리 부인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즉, 자신이 주도하는 상위체위로 부

부관계를 하던 중 흥분이 고조되어 격렬히 하체를 흔들는 순간 남편의 성기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지경까지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시 전공의 시절 일년에 한 번 볼까말까 한다는 ‘음경결절’이었다.
개의 그것과는 달리 사람의 음경은 뼈가 없다. 그런데 왜 ‘음경결절’일까? 성적 흥분이 시작되면 ‘음경 해면체’라고 불리는 조직에 혈액이 모여 흥분이 최고조에 이르면 음경은 뼈와 진배없는 강인하고 아무진 모양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팽팽해진 음경에 외부의 강한 둔력이 순간 가해지면 음경해면체를 지탱하는 백막이 파열되면서 ‘뚝’소리를 내며 뼈가 부러지는 듯하다 하여 ‘음경결절’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다.
어쨌든 그 환자는 바로 응급수술을 받아 찢어진 백막을 봉합함으로써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다행히 별 탈 없이 회복되어 예전의 발기

력을 되찾게 되었다.
사례와 같이 음경결절은 여성 상위의 성행위 때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그 외에 수면 중 발기된 상태에서 뒤척이거나 침대에서 떨어져도 가능하며, 과도한 자위행위, 또는 지퍼나 팬티를 내리다가도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

창피하다고 방치 말라

일단 음경결절이 의심되면 즉각적인 수술치료가 원칙이며 적절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조기진단, 조기치료가 우선이라 하겠다. 만일 창피하다고 그 상태에서 방치할 경우 찢어진 백막부위가 교정 안 되고 그대로 불어 나오게 음경이 휘어지는 음경만곡증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꼭 즉시 치료해야 한다.
사랑을 나누는 행위로만 여겨지는 부부관계에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조금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성들이여! 그들의 주도하에 사랑을 속삭일 때는 조금만 조심해 주시라. 남자를 잡을(?) 수도 있다.
<태미림 피부비뇨기과 원장>



46. 2007년 정해(丁亥)년을 맞아 유통가에서는 동물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특히 올해는 60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재복이 넘치는 이 동물의 해로, 평생 만나기 힘들다는 속설 때문에 유통업계 등에서는 이 동물을 내세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저출산 추세에서도 출산 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시간 중 가장 마지막 동물은 무엇일까요.
① 쥐 ② 소 ③ 호랑이 ④ 돼지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처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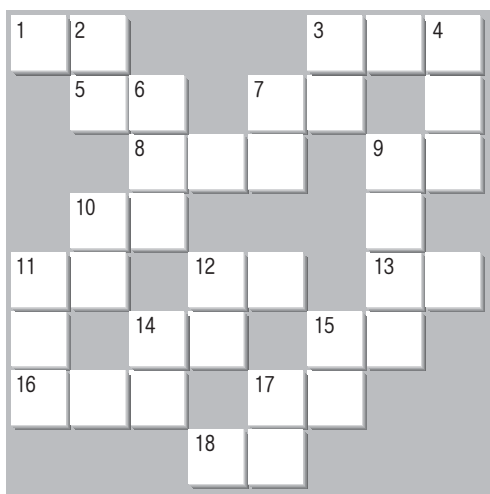
→ 가로풀이

1.다리와 꼬리가 짧고 주둥이가 빠죽한 가축. 잡식성으로 운순하며 건강하다. 임신 4개월 만에 8~15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또는 몹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3. 안과 밖의 사이. 또는 부부 사이를 이르는 말. ~에 금실이 좋다. 5.상황이나 상태가 갑자기 변화하거나 달라짐. 국제 정세가 ~하다. 7.특별하지 아니하고 흔히 볼 수 있어 평범함. 또는 뛰어난지도 열등하지도 아니한 중간 정도. 8.남을 속이는 짓. 또는 그런 술수. 그의 간교한 ~에 넘어가다. 9.사내종과 계집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비복. ~문서. 10.사물의 이치를 밝혀 시비를 가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해 내는 재능. ~지혜. 조상의 ~를 이어받다. 11.장군의 지휘 아래. 또는 그 지휘 아래에 딸린 군사. 그는 유명한 장군 ~로 들어갔다. 12.술을 빚는 데 쓰는 발효제.

밀이나 진 콩 등을 굵게 갈아 반죽해 덩이를 만들어 띄워서 만든다. 13.이십사절기의 하나. 소한(小寒)과 입춘(立春) 사이에 들며 한 해의 가장 추운 때이다. 1월 20일경이다. 14.영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활동의 대상으로 찾아온 사람을 대접해 이르는 말. ~! 이쪽에서도 한 번 골라보세요. 15.팍을 달고 서거나 걸을 때 발에 신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16.남편이 있는 여자. 17.과거에 집안에서 바깥 주인이 거쳐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 이분을 여서 ~으로 모셔라. 18.한 집 안에 두 채 이상의 집이 있을 때, 안에 있는 집을 이르는 말.

↓ 세로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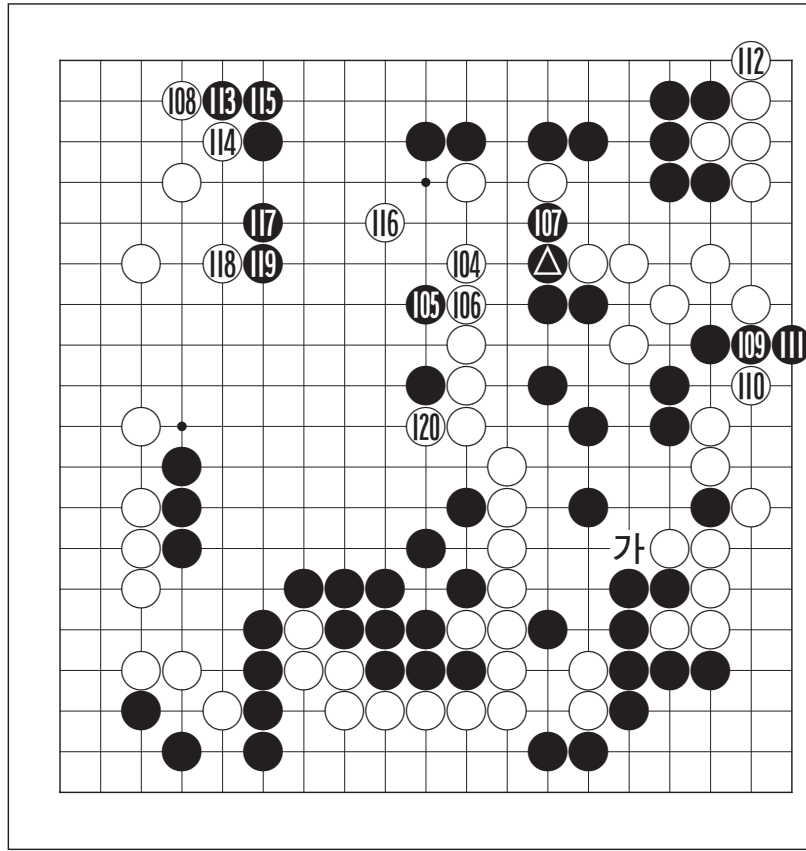
2.돈이나 물품 등을 정해진 몫만큼 내줌. 이자를 ~하다. 3.어떤 조직의 사람이 외부의 조직이나 사람과 남몰래 관계를 가지고 통함. 그가 적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터무니없이 지지는 않았을



<함께 풀어봅시다 233회 정답>

것이다. 4.여러 가지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작업비. 6.자동차 등의 원동기에서 회전 속도나 회전력을 바꾸는 장치. 7.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 그는 사측에 일한 만큼 정당한 ~를 요구했다. 9.몹시 노하여 팔팔 땀을 흘림. 10.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어머니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에 자식은 못이나 두었소? 11.자동차의 연료로 쓰이는 액체. ~가솔린. 12.누나

의 높임말. 14.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낳은 딸. 15.갓 결혼했거나 결혼하는 남자. 17.개인이 사사로이 진.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보다 이자가 비싸다.
▲지난주 정답자
이윤수·광주시 동구 계림동
조우영·광주시 서구 풍암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반상 최대의 곳 7보(104~120)
이세돌, 日 장수에 역전패

이세돌 9단이 지난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회 도요타테너소배 세계왕좌전 결승 3번기 제1국에서 일본의 장수 9단에게 298수 끝에 흑 반집패했다.
이 9단은 두터움이 돋보이는 행마로 장수 9단을 리드한 뒤 중반에 승부수를 띄웠으나, 치열한 중앙 접전 끝에 역전패의 고배를 마셨다.
도요타테너소배 2연패에 도전하는 이 9단은 남은 2차례 대국에서 연승을 거둬야 우승할 수 있는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제2국은 8일 열린다.
이 대회는 일본기원에서 주최하며 도요타자동차그룹, ㈜테너소에서 후원한다. 우승상금은 2억4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바둑소식

이세돌 9단이 지난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회 도요타테너소배 세계왕좌전 결승 3번기 제1국에서 일본의 장수 9단에게 298수 끝에 흑 반집패했다.
이 9단은 두터움이 돋보이는 행마로 장수 9단을 리드한 뒤 중반에 승부수를 띄웠으나, 치열한 중앙 접전 끝에 역전패의 고배를 마셨다.
도요타테너소배 2연패에 도전하는 이 9단은 남은 2차례 대국에서 연승을 거둬야 우승할 수 있는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제2국은 8일 열린다.
이 대회는 일본기원에서 주최하며 도요타자동차그룹, ㈜테너소에서 후원한다. 우승상금은 2억4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14>

Would you care to ~?
~하시겠습니까?
A: We have a two-bedroom apartment available for seven hundred dollars a month.
B: That sounds quite reasonable.
A: Would you care to see it?
B: Yes. Please show it to me.
A: This way, please.
A: 한 달에 700 달러에 방이 두 개 딸린 아파트가 있습니다.
B: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A: 한번 보시겠습니까?
B: 좋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A: 따라오십시오.
available :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care to = like to
This way : 이 쪽으로 오십시오.
응용표현
- Would you care to give him a hand?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오하이오 니혼고 <814>

お祝(いわ)うする
축하하다
A: 韓国では 舊正月(きゅうしょうがつ)を盛大(せいたい)にお祝(いわ)いするんですね。
B: そうですね。そういえば、日本は陽曆(ようれき)でしたよね。
A: そうですね。年末は30日頃が仕事納(しごとおさ)めで、年始(ねんし)は5日頃から、仕事始(しごとはじ)めですから、1週間くらいですね。
B: ええ、そうですね。
A: 한국에서는 구정을 성대하게 축하하는 거죠?
B: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일본은 양력이었군요. 일본의 설휴가는 며칠정도입니까?
A: 글썽요. 연말은 30일경에 업무 끝이고, 연초는 5일경부터 업무 시작하니까 1주일정도 이군요.
B: 해, 그렇습니까?
舊正月(きゅうしょうがつ) : 구정
盛大(せいたい) : 성대히
そういえば : 그러고보니

니하오 쑹구위 <5>

我想请你喝咖啡
제가 커피 대접하고 싶은데
A: 明天星期六，你打算干什么？
mingtian xingshuoming, nide shuan shi shenme
내일 토요일은 뭐 하려고 하시겠어요.
B: 我想去图书馆，你有什么建议？
woxiang qu tushuguan, nishenme yijian
도서관에 가려고 하는데, 뭐하라고 하시겠어요.
A: 你想请你喝咖啡。
woxiang qingni hekafei
원래 뭐 하려고 하시겠어요.
B: 没关系，好吗？
wubeiguan, hao ma
괜찮아요, 괜찮아요.
A: 你想去图书馆，周末有时间吗？
nide shuan shi shenme, xingqiwu youshi jian ma
내일 토요일은 뭐 하려고 하시겠어요. 주말엔 뭐 하려고 하시겠어요.
B: 我想请你喝咖啡。
woxiang qingni hekafei
원래 뭐 하려고 하시겠어요.
A: 你想去图书馆，周末有时间吗？
nide shuan shi shenme, xingqiwu youshi jian ma
내일 토요일은 뭐 하려고 하시겠어요. 주말엔 뭐 하려고 하시겠어요.
B: 我想请你喝咖啡。
woxiang qingni hekafei
원래 뭐 하려고 하시겠어요.

한자 이야기 <432>

反求諸己 (반구자기)
되돌릴 반, 구할 구, 어조사 저, 자기 기
반구자기(反求諸己)는 일의 잘못된 원인(原因)을 되돌아켜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다. 남을 탓하지 않고 일의 잘못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 고쳐간다는 의미이다. 반구자문(反躬自問) 또는 반구자성(反躬自省)이라고도 한다.
작년 연말에 ‘교수신문’은 ‘구름만 뻗뻗하고 비가 오지 않는다’는 뜻의 밀운불우(密雲不雨)를 2006년 한해를 평가하는 고사성어로 선정하여 화제를 모았었다. 정치·경제·사회적 답답함을 표현한 말이었다. 한편 2007년의 소망을 담은 성어로는 ‘반구자기’를 선정하였다. ‘반구자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는 말이다.
‘맹자’에는 “활을 쏘아서 적중하지 못해도 나를 이기는 자를 원망하지 않고, 물이켜서 자기에서 찾을 따름이다”(發而不中，不怨勝己者，反求諸己而已)라는 말이 있다. 또 “행하여도 얻지 못거든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구해야 한다”(行有不得者，皆反求諸己)라는 표현도 있다. 인간의 내면적 성찰과 반성을 강조하였던 유교적 수양관이 잘 드러나는 성어이다. 여기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결의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